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258.77 (-37.61)	798.81 (-2.86)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3.746 (+0.004)	1410.00 (-6.10)		

m-커버스토리

동전주 ‘숙아내기’ 코스닥 11% 상폐

상장사 유지요건 강화

주가나 시가총액 미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숙아내기’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가 최근 사흘간 무려 50곳 가까이 속출했고,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도 코스닥 전체 10.6%에 달하면서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우선주 제외)이다. 43곳이 지난 5일 공시를 냈고, 6일과 7일 3곳, 2곳씩 추가됐다. 이들은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았던 상장사다. <관련기사 4면>

30일간 1000원 미만 ‘관리종목’ 45일 연속 땀 상장폐지 될 수도
시총 미달요건도 기존보다 상향
코스피 300억, 코스닥 200억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의 상장 유지 요건은 지난달 1일부터 더욱 엄격해졌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5거래일째엔 상장사가 지정 우려 공시를 내야 하는데, 지난 5일이 이변 요건 시행 후 첫 공시 대상 일이었다. 이에따라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무더기로 나올 전망이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를 포함,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을 밑도는 상

장사는 코스닥 131개, 코스피 32개다. 원래 시행 중이던 시총 미달 요건의 기준도 코스피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되면서 관련 공시도 함께 늘었다. 지난달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44곳, 코스피 12곳(우선주 제외) 등 총 56곳이다. 이 중 28곳이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이 기준을 상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지난 7일 기준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41개(우선주 제외), 코스닥 194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상장사 전체 1820곳 중 10.6%에 달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중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곳은 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다.

일단 코스피 주연테크와 아센디오는 유상증자에, SH에너지화학은 임원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코스닥의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스, 케이엠제약 등도 자기주식 취득에 나서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이외에도 액면 병합, 인수·합병(M&A) 등이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소규모 상장사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작은 규모 상장사의 유상증자는 자본 희석 우려가 크고, 인수·합병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모로 쉽지 않다”며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스스로 올리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ChatGPT로 생성한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수·합병(M&A)·주식병합 등을 활용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관련 이미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스>

‘속도 강조’ 주택 대책 이르면 13일 발표

李 대통령, 13시간 ‘끝장토론’ 결과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방안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30분의 부동산 대책 ‘끝장토론’을 이어간 끝에,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주택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다음 7일엔 2차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회의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선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

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회의에서도 ‘속도’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초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고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신규 공급 후보지로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 ‘5만호 이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가 향후 2~3년 내 착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 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울 주요 후보지의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어, 지자체가 반발하면 공급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6000가구 공급 ‘원안’을 고수하는 서울시와 1만가구를 주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13일 발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metro

오이 55%, 애호박 47% 급등… ‘히트플레이션’ 덮쳤다

(더위가 불러오는 물가 상승)

소비자물가 2.8% 안정세 찾았지만 폭염에 농수산물 가격 ‘새로운 복병’

전례 없는 폭염이 농수산물 가격을 밀어 올려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오이·애호박·시금치 등 여름철 채소는 고온과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해지고, 바다에서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속출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지만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농수산물 가격이 다시 물가를 끌어 올리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더위가 불러오는 물가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6%를 기록한 뒤 5월과 6월 각각 3.2%로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내려왔다. 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농수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변수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특히 채소류는 폭염에 취약하다. 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 작물의 생육 속도가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뭄으로 토양 수분 부족까지 겹쳐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산물 역시 연안 수온 상승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참외 도매가격은 10kg 기준 3만94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상승했다. 시금치(4kg)도 같은 기간 5만6239원에서 6만2257원으로 10.7% 올랐다. 오이는 가장 대표적인 품종군인 다다기계통 기준으로 10개당 소매가격이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나 급등했다. 애호박은 1개당 1026원에서 1504원으로 46.6%, 청상추는 100g당 1165원에서 1661원으로 41.7% 올랐다. 최근 이어진 무더위에 채소류들이 메마르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독도 해양조사 반발 日 항의에 “정당한 활동”
▲與 “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 정부에 요청” <사진 뉴스>

▲문진석 “李대통령을 신천지와 엮는 저질 정치 공작, 당이 고발조치 해야”
▲폭염 중대본, 범정부 대응 점검…“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폭염에 물부족까지…대구·부산 등 전국 48곳 ‘기상 가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차등…인구감소지역은 혜택 확대